

광양시 벤처기업센터 ‘인큐베이팅 산실’

지원 기업 21개 중 17개사 기술 개발로 창업 성공 신규 입주기업 3개사 모집...유망 중기 발굴·육성

광양시가 운영하고 있는 ‘벤처기업센터’가 기업 인큐베이팅 역할을 톡톡히 해내고 있다.

광양시에 따르면 시가 벤처기업센터를 통해 소프트웨어 게임 업체, 철강 부품업체를 비롯한 21개 벤처기업을 지원한 결과 81%인 17개사가 기술개발로 창업에 성공하는 등 가시적인 성과를 창출했다.

광양시에 따르면 컨부두 사거리 황금빌딩 5층에 자리잡은 ‘광양시 벤처기업센터’는 창업 인큐베이터로서 역할을 담당해왔으며 창업 문화 확산과 일자리 창출을 선도할 지역의 유망한 중소벤처기업을 발굴·육성하고 있다.

광양시 벤처기업센터에서 창업한 17개사는 (주)아이티엘, 세동산기(주), (주)에코비전, (주)비엠펜, 현시스템(주), 마

린블리스, (주)원천, 가먼츠, (주)엔텍, (주)상우엔지니어링, (주)솔라리스, (주)에스엔에스아이앤씨, 크레이츠, (주)사우나컴퍼니, (주)에너텍글로벌, 네오캐스트디오, (주)다올이다.

특히 (주)에너텍글로벌은 중소벤처기업부 창업성장기술 공모에 ‘보일러 불순물 제거 국산화 제품개발 R&D 발굴’ 사업이 선정되면서 1억5000만원을 지원받는 성과를 냈다.

또 데이터베이스 및 온라인정보 제공업체 크레이츠는 특허출원 2건과 상표출원 1건 등 산업재산권을 획득했다.

현재 센터에는 5개 기업이 입주해 지원을 받고 있으며 창업과 사업장 이전 등에 따른 변동이 생겨 새로 입주할 3개 기업을 선발할 예정이다.



입주 기업은 한 기업당 약 10㎡의 사무공간이 제공되고 책상, 캐비닛 등 비품 일부와 각종 기업지원 시책을 제공 받게 된다.

2년간의 사업성과 심사를 거쳐 1회 연장할 경우 최대 4년간 이용할 수 있다.

기술상담, 자문 지원, 시제품 생산, 장

비 지원, 국내외 판로 개척에도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전남테크노파크와 함께 기술사업화까지 지원받을 수 있다.

신청 대상은 ▲벤처기업 또는 벤처기업으로 전환하거나 창업중인 기업 ▲IT, BT, CT, NT 관련분야 신소재산업, 향토산업, 신지식인 영위기업 ▲친환경 녹색성장 관련 기업 ▲정보통신, 연구개발 등 지식산업, 영상·음반·비디오 등 문화산업 기업 ▲산업단지 및 개별입주 입주 예정 기업 ▲지원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기업 등이다.

벤처기업센터에 입주를 희망하는 기업은 서류를 구비해 16일까지 시청 지역경제과 기업지원팀에 제출하면 된다.

광양시 관계자는 “벤처기업센터에 입주한 기업들이 기술개발 등 시제품을 사업화해 성공하는 기업인이 많이 나올 수 있도록 적극적인 지원을 펼쳐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광양=김대수 기자 kds@kwangju.co.kr

범죄 예방 위한 ‘여성안심 무인택배함’ 중마동 원룸 밀집지역 확대 설치 운영



중마동 원룸 밀집지역에 설치한 여성안심 무인택배함. (광양시 제공)

광양시는 택배기사를 사칭한 여성 범죄 예방을 위한 ‘여성안심 무인택배함’을 중마동 원룸 밀집지역에 확대 설치해 운영한다고 밝혔다.

‘여성안심 무인택배함’은 낯선 사람을 대면하지 않고 거주지 인근지역에 설치된 무인택배 보관함을 통해 원하는 시간에 택배를 받을 수 있는 서비스로, 혼자 사는 여성이나 직장 생활로 택배 수령이 어려운 지역주민들이 안심하고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다.

시는 지난 2014년 11월 금호동 주민자치센터에 여성안심 무인택배함을 최초로 설치한 이후 지난해 7월 광양읍, 중마동, 금호동 등 총 3개소와 중마동 1개소를 확대해 총 5개소 무인택배함 운영하고 있다.

여성안심 무인택배함은 24시간 365일 무료로 운영되며, 누구든지 이용 가능하다.

무인택배보관함 이용방법은 택배 주문시 물품수령 장소를 집에서 가까운 안심택배함으로 지정하면, 물품 배송일시와 택배보관함 번호, 인증번호가 주문자의 휴대전화에 문자로 전송된다.

이때 휴대전화로 전송된 비밀번호를 ‘여성안심 무인택배함’에 입력하면 물건을 찾아갈 수 있다.

최속과 광양시 사회복지과장은 “이번 ‘여성안심 무인택배함’ 설치로 여성 단독 가구나 원룸거주 주민들이 택배를 안심하고 편리하게 수령하는 데 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며 “앞으로도 여성이 행복하고 안전한 ‘여성친화도시’를 만들어가는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광양=김대수 기자 kds@kwangju.co.kr

“광양마린베이, 시민이 행복한 친수공간으로”

기본계획수립용역 최종보고회 시, 18일까지 계획 수립 완료

광양시는 지난 6일 시청 상황실에서 정현복 광양시장 주재로 관련 부서장, 유관기관 관계자 등 2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광양마린베이 기본계획수립용역 최종보고회’를 개최했다.

보고서는 회는 효율적인 친수공간 조성을 위한 구역별 테마존 설정, 광양만을 활용한 친수 공간 내 필요시설, 가족형 어린이테마파크·구룡산 관광개발·이순신대교 테마거리 조성 등 주변 관광사업과의 연계방안, 동·서측 기본구상(안) 등의 내용을 담고 있다.

이번 최종보고회는 지난 4월 착수보고회와 6월 선진지 벤치마킹, 7월 전문가 자

문회의, 8월 중간보고회, 9월 골약동 주민설명회 및 부시장 주재 대책보고회 등에서 제시된 다양한 의견에 대한 검토와 주변 관광명승화 사업 관련 부서장의 의견을 수렴하기 위해 마련됐다.

용역수행을 맡고 있는 (주)이산 노상일 상무는 역사·문화·예술공간 창출, 누구나 이용 가능한 Healing Place, 지역의 자연·인문자원을 활용한 생태기 등 차별화된 전략과제를 통해 광양읍의 동·서전변과 유사한 중마동의 친수공간 조성안을 제시했다.

최종보고회에 참석한 정현복 광양시장은 “보고회에서 제시된 보완 의견을 세밀하게 검토해 오는 18일까지 기본계획 수립을 완료해 시민이 행복한 친수공간을 조성할 계획이다”라고 말했다.

/광양=김대수 기자 kds@kwangju.co.kr



▲광양시는 지난 6일 시청 상황실에서 정현복 광양시장 주재로 ‘광양마린베이 기본계획수립용역 최종보고회’를 개최했다. (광양시 제공)

활·화살 제작 장인 김기 공시장 우즈베크 국제비엔날레 그랑프리

광양시는 김기 공시장(弓矢匠·활과 화살을 만드는 장인)이 우즈베크스탄에서 열린 국제비엔날레에서 그랑프리를 수상했다고 밝혔다.

전통문화 예술을 선보이는 우즈베크스탄 국제비엔날레는 13개국이 참가해 경쟁을 펼쳤다.

광양공전시교육관은 ‘동방의 로마, 그리고 햇살’을 주제로 김기 공시장과 이수자 김철호·양지욱씨의 작품을 출품했다.

김기 공시장과 김철호 전수실장은 우즈베크스탄 국영방송 프로그램에 출연해 우

리 전통문화를 알리기도 했다.

광양공시전수교육관은 지난달 우즈베크스탄에서 교류전을 연 데 이어 한국의 전통 화살 만들기를 체험할 수 있는 공간을 열어 호응을 얻었다.

우즈베크스탄 국립 예술대학교에서 한국의 전통 활과 화살을 소개하고 교류 방안도 논의했다.

광양공시전수교육관은 전통문화예술 국제교류전 이외에도 전수교육관 활성화 사업, 문화재청 공모사업, 문화유산 바로알기 사업 등 ‘전통공예 체험프로그램’을



김기(가운데) 공시장과 김철호(오른쪽) 전수실장이 우즈베크스탄 비엔날레 최고상인 그랑프리 상을 수상하고 있다. (우즈베크 국영방송 화면 캡처)

광양매화라이온스클럽, 독거노인 위한 생필품 기탁



광양시 광양읍 지역사회보장협의체(공공위원장 정홍기, 민간위원장 서문식)는 지난 6일 동절기를 맞아 저소득 독거노인을 위한 100만원 상당의 생필품을 (재)광양시사랑나눔복지재단을 통해 지정 기탁했다. (사진)

이번 후원은 광양매화라이온스클럽이 연말에 쥐포판매 사업으로 창출한 수익을 지역사회에 환원코자 준비한 물품이다.

이날 광양읍 맞춤형복지팀은 독거노인 생활관리사, 광양매화라이온스클럽 관계자와 함께 저소득 독거노인 가정을 방문해 후원물품을 전달했다.

오수진 광양매화라이온스클럽 회장은 “조그마한 성의지만 복지사각지대에 놓인 어려운 이웃에게 작은 보탬이 되었으면 하는 바람으로 후원물품을 기탁하게 됐다”며 “희원 여러분의 따뜻한 마음이 모여 어려운 이웃을 돕는 계기를 마련해 기쁘다”고 말했다.

광양매화라이온스클럽은 8월부터 광양읍지역사회보장협의체와 함께 ‘사랑앓 냉장고’를 이용하는 취약계층과 생활이 어려운 홀몸 어르신들을 위해 반찬 도시락 20세트를 매월 둘째 주 월요일에 정기 후원하고 있다. /광양=김대수 기자 kds@

선박 저속운항 운영 방안 안내 및 소통 간담회 개최 여수광양항만공사

여수광양항만공사(사장 차민식·이하 공사)는 지난 6일 광양항 월드마린센터에서 여수·광양항 이용 선사 및 대리점 등이 참석한 가운데 ‘선박 저속운항 운영방안’ 안내 및 이용고객과 소통을 위한 간담회를 개최했다.

이번 간담회는 선박의 저속운항을 유도해 대기오염원 배출을 저감하고 미세먼지 문제에 적극 대응하기 위해 지난 1일부터 시행된 ‘여수·광양항 선박 저속운항’ 프로그램의 안내 등을 위해 개최됐다.

또 PORT-MIS(해운항만물류시스템)에도선 신고 시스템의 시행(12월 3일 정오부터) 등과 관련한 현장의 소리를 청취하는 시간도 가졌다.

공사는 간담회에서 제시된 건의 및 애로사항 검토를 통해 즉시 개선하거나 항만 당국에 건의하는 등 여수·광양항을 안전한 항만으로 만들어 나갈 계획이다.

/광양=김대수 기자 kds@kwangju.co.kr

2019
12.1
~
12.31

무등파크 호텔&리조트

송구영신 패키지 특별프로모션

기업행사 · 세미나 · 대관 · 가족행사 · 돌잔치 · 송년회 · 신년회

01 송구패키지 (100명) -5,997,400원 → **5,000,000원**
스탠다드룸 1박 + 연회 뷔페(주류, 음료 포함) + 고급 케이크 + 아이스카빙 + 밴드 연주

02 영신패키지 (200명) 40,861,600원 → **10,000,000원**
스탠다드룸 1박 + 연회 뷔페(주류, 음료 포함) + 고급 케이크 + 아이스카빙 + 밴드 연주

최소 20명에서 최대 500명까지 한 번에 진행가능!

MUDEUNG PARK HOTEL & RESORT

예약문의 062-226-0011